

17기, 새로운 도약

오늘, 출범회의

통일, 세대공감

민주평통 365

즐거운 통일

심표, 느낌표



제17기 민주평통,  
'폴뿌리 통일준비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자!



17기에 바란다

제17기 민주평통,  
'폴뿌리 통일준비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자!

지난 7월 1일 출범회의를 기점으로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막  
이 올랐다. 광복...

[더보기 >](#)



국민들의 통일생각  
국민이 꿈꾸는 통일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16기를 돌아보며  
16기 자문위원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대회사 전문  
제17기 출범회의  
의장 대회사



행사스케치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향한 첫 걸음!!



현장 인터뷰  
통일 열기 가득한 출범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을 만나다!



통일 Talk  
8천만의 행복을 위한 '통일 엔진'  
17기 청년위원



대학생기자단 출범회의 동행기  
민주평통 대학생기자단  
출범회의 가다!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  
제17기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 개최



해외간부위원 워크숍  
통일 열망 안고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다



느낌 있는 여행  
무작정 떠나고 싶거나 혹은 한없이  
게을러지고 싶을 때 - 인천 강화도



통일 웹툰  
통일한국 전통 장으로  
글로벌 냉장고를 부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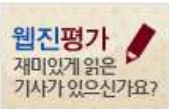
통일 레시피  
무더운 여름철 별미  
함경도 감자밥



이벤트 당선작  
다섯단어로 말해요



이벤트  
북한친구들아,  
같이 휴가가자!







지난 7월 1일 출범회의를 기점으로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막이 올랐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기도 한 2015년에 제17기 민주평통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출범식 대회를 통해 의장(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더 큰 비상을 이루려면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과제”로 ‘분단국가의 현실’을 지적했다.

남북한 간의 뿌리 깊은 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대치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협력을 가로 막으면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결정적 장애가 된지 벌써 70년이 된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제 분단의 극복과 통일시대의 개막은 단순한 당위명제의 차원을 넘어선, 현실적인 핵심목표가 되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길은 결코 가기 쉬운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거칠고 험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 험로(險路)이다. 분단은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라는 상대방의 환골탈태(換骨奪胎)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일의 여명(黎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위협을 넘어서 세계의 불안거리가 되어 버렸으며, 북한 자체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경제와 평화’ ‘체제안정과 경제발전’ 모두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과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남북한 간 정치·경제·군사적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자는 구상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표방한 이후  
 일관되게 지켜 온 원칙이었다.  
 ‘원칙’은 통일이라는 먼 항해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나침반과 같은 존재이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남북한 간 정치·경제·군사적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자는 구상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표방한 이후 일관되게 지켜 온 원칙이었다. ‘원칙’은 통일이라는 먼 항해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나침반과 같은 존재이다. 수시로 기준점이 바뀌는 부실한 나침반으로는 결코 안정적인 항해도, 통일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북한의 국면전환용 도발에 전전긍긍하면서 효과가 불확실한 유화책을 주장하는 일도, 남북교류협력을 무조건 ‘퍼주기’로 논박하는 일도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준비에 있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먼저 안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것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나와 다른 의견,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견해도 들을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소통과 이해를 통해 공동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진정한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의 장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통일준비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거운 과제이며, 시민사회 단독으로 해 나가기에는 더더욱 무리가 따르기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協業) 정신이 발휘될 때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민주평통은 통일준비를 위한 사회통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기구이다.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인력의 전문성 면에서나 지역적인 기반, 그리고 세대 간의 균형까지 공히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신기원을 개척하였고,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관련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1:1 멘토링 등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고 자리 잡아 나가는 데에도 더 없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성공은 결코 끝이 아니다(Success is never final).” 영국의 명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 卿이 남긴 말이다.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 썩어버리는 것처럼, 성공에 취해 안주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오지 않는다. 이제 제17기 민주평통 역시 과거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 ‘풀뿌리 통일준비운동’은 통일준비가 다른 누구의 일도 아닌, 바로 내 생활 속에서의 일상화된 과제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의식이 우리 국민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17기 민주평통의 활동에서는 세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아래로부터의 통일준비” 운동, 맞춤형 ‘작은 통일운동’을 통한 통일 의식의 확산, 통일 대비 미래 인재 육성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 실천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문건의의 전문성과 보편성도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자유, 인권, 복지 등이 고르게 실현된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서 미래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통일과정을 통해 남북이 함께 나누어야 할 희망의 청사진이다. 더 나아가 “지역과 세계차원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주도하는 평화속진국가”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통일한국의 모습일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변화하여야 한다. 북한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가 된 ‘풀뿌리 통일준비운동’을 통해 남북한 민초들의 신뢰가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풀뿌리 통일준비운동’은 통일준비가 다른 누구의 일도 아닌, 바로 내 생활 속에서의 일상화된 과제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의식이 우리 국민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17기 민주평통의 활동에서는 세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아래로부터의 통일준비” 운동, 맞춤형 ‘작은 통일운동’을 통한 통일 의식의 확산, 통일 대비 미래 인재 육성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 실천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문건의의 전문성과 보편성도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15년은 민주평통 17기의 출범 연도이자, ‘풀뿌리 통일준비운동’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통일된 대한민국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뭇 달라진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그 혜택을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누리는 시대, 그 행복한 꿈을 제17기 자문위원 모두가 함께 그려나가기 기대해 본다.



통일은 8천만 모두가 활짝 웃는 미래입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꿈꾸는 통일이어야 하기에, 국민과 함께 준비하는 통일!  
여러분에게 통일은 무엇인가요?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2013년 7월 1일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방의회 의원 3,085명, 직능대표 13,577명,  
그리고 해외동포대표 115개국 3,275명 등 총 19,937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민통합'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활동목표를 위해 16기 민주평통은 2년의 임기 동안 730일을 쉬지 않고 달려 왔습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작지만 큰 디딤돌을 놓아주신 1만9천937명의  
16기 자문위원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제16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 제16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의 전경(2013년 8월 28일)



#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적실성 있는 자문건의 추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분과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정책건의를 실시하였고, 전문가들의 통일 관련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



| 2013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및 대통령과의 대화(2013년 11월 25일)



| 2014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2014년 12월 4일)

## 분과위원회



제7차 기획법제분과위원회(2014년 11월 3일)

제8차 통일교육위원회(2015년 2월 27일)



제9차 정치안보국제분과위원회(2015년 4월 17일)

## 전문가토론회



제12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2014년 4월 11~12일)







제13차 남북관계  
전문가대토론회  
(2014년 11월 14일)



| 제15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2015년 5월 27일)

## 통일문제와 각종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분기별 '정기회의'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정기적·체계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16개 시·도별 '국내 지역회의'와 '직능별 정책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 국내지역회의



| 제16기 인천지역회의(2014년 6월 17일)





| 제16기 전북지역회의(2014년 6월 17일)



| 제16기 서울지역회의(2014년 6월 24일)

## 해외지역회의



| 제16기 해외지역회의-3차(2014년 9월 1~4일)

해외지역회의에서 해외자문위원과 대화를 나누는 박근혜 대통령 |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 직능별정책회의



2015년도 제1차  
직능별 정책회의  
(2015년 4월 1~2일)







| 2014년도 제6차 직능별 정책회의(2014년 11월 4~5일)



## 정부 정책과 북한정세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

국민에게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전국 17개 시도 지역회의와 228개 시·군·구 지역협의회 단위에서 '통일시대시민교실'과 각종 '대북정책설명회·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통일시대시민교실



| 경북 칠곡군협의회  
(2014년 12월 3일)



| 경기 김포시협의회  
(2014년 12월 18일)



| 광주 광산구협의회  
(2015년 3월 18일)





제주 서귀포시협의회(2014년 12월 26~27일)



부산 동래구협의회(2014년 11월 17일)



충남 아산시협의회  
(2014년 11월 19일)



## 통일을 실질적으로 완성할 통일후계세대 육성 활동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중학생 역사-통일퀴즈왕대회', '달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 중 ·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KBS 역사통일 골든벨  
(2014년 7월 20일)



EBS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전국 결선대회  
(2013년 12월 22일)





## 미래세대와의 통일대화



| 청춘 토크 콘서트 '통일드림' (2015년 9월 2일)

|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  
(2015년 5월 27일 / 전북 완주군협의회)



| 2015 강원 청년 통일 TALK  
(2015년 4월 30일)



| 2015 강원 청년 통일 TALK(2015년 4월 30일)

## 청년·청소년 통일 문화활동



| 북녘친구에게 보내는 초등학생 편지쓰기대회 시상식  
(2014년 8월 19일)



제1차 통일기원 국토탐험대  
(2014년 8월 20~23일 / 서울지역 청년위원회)







| 통일대박  
비보이 댄스배틀  
(2014년 11월 15일 /  
전북 전주시협의회)



| 2014 청소년 통일리더십캠프(2014년 4월 4~5일 /  
대구 중구협의회)



| 전북대학교 통일 동아리 DMZ 캠프(2015년 5월 16일 / 전북 지역회의)

## 국민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통일문화사업 전개

국민이 보다 쉽게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돕고,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통일문화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 2014 평화통일 어울림 한마당(2014년 7월 19일 / 서울지역회의)





제1기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발대식(2014년 12월 30일)



2030청년지문위원 DMZ 평화통일 한마음축제-걷기대회 (2013년 11월 1~2일)

제15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2014년 4월 26일 / 경북 포항시협의회)



2014년 통일맞이 춤마 평화콘서트(2014년 12월 16일 / 경기 용인시협의회) |







| 2014 청소년 통일백일장 글짓기 대회  
(2014년 10월 9일 / 경기 양주시협의회)



| 통일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평화통일 그림그리기  
(2014년 10월 28일 / 충북 옥천군협의회)



| 광복70주년 통일을 노래하다  
'통일송 개사 경연대회'  
(2015년 4월 28일 / 대전지역회의)



##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 정착 지원 활동

자문위원 스스로 '통일맞이 하나 다섯 운동'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청-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MOU 체결  
(2014년 3월 21일)

의료봉사단 제3차 무료건강검진(2014년 10월 10일) |



|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 '어깨동무하기 방학캠프'(2014년 8월 13일 / 검가지역회의)





어깨동무하기 멘토 아카데미  
(2014년 4월 24~25일)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 활동

전세계 115개국에 흩어져 있는 자문위원들이 현지의 전문가, 여론주도층 인사를 초청하여 '해외평화통일포럼', '해외대북정책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한국의 통일·대북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해외평화통일포럼



| 2015 한·중 평화통일 포럼(2015년 4월 22일)



| 2015 한·미 평화통일포럼(2015년 5월 21일)



| 2015 한·베 평화통일포럼(2015년 5월 22일)

| 2014 한·독 평화통일포럼(2014년 10월 15일)





해외지역 통일활동



2014 한인 차세대 컨퍼런스  
(2014년 11월 20~22일 /  
캐나다 밴쿠버협의회)



아시아·유럽 여성컨퍼런스  
(2014년 12월 10~12일 /  
동남아남부협의회)



한반도 통일 기원  
베를린장벽 길 걷기 운동  
(2014년 12월 10일 /  
북유럽협의회 베를린분회)



| 차세대 통일 강연회(2015년 2월 6~7일 / 브라질협의회)



| 북한인권 사진전·강연회(2015년 2월 6~7일 / 중동협의회)



통일 시화전 및 통일 글짓기 대회  
(2014년 3월 1~15일 / 아프리카협의회)



| 유라시아대륙 한민족 축제(2015년 5월 2일, 중앙아시아협의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여러분,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참석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인 해입니다.  
광복은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열어가는 희망찬 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감격은 분단의 시작이기도 했고,  
그 이후 일어난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를 거치면서  
우리는 극심한 가난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불굴의 용기와 도전으로  
술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G-20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질서의 창달에 기여하고 있고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융성국가로도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뤄오기까지에는  
밤낮없이 땀 흘리며 국가발전에 헌신하신  
많은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님들 가운데에도  
헌신과 희생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오신 원로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기 자문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70년의 성공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더 큰 비상을 이루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70년간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온  
'분단국가'의 현실입니다.

지난 70년간 끊어졌던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고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될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크게 비상할 것입니다.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민족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은 전제 조건만 제시하며 호응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힘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지켜집니다.

기존의 남북간 합의서들은 하나같이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졌던 시기는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던 때에도 서해 앞바다에서는  
우리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개발입니다.

북한 핵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동시에,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 사회의 제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북한 체제의 불안정만 증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경제와 평화' '체제안정과 경제발전'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과정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인프라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북한의 경제특구 구상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개혁개방으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이 체제를 지킬 것이라는 미망을 하루 속히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로 평화통일을 이뤄낸 독일은  
눈부신 발전과 번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서독 주민들은 분단의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왕래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것이 독일 통일의 가장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분단 70년을 맞아 이질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와 협력 확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곧 있을 경원선 복원사업 착공을 계기로  
남북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고,  
역사 발굴 사업과 스포츠 교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민주평통은 국내외 지역은 물론 모든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진  
사회통합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난 70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원로세대부터  
앞으로의 70년을 책임질 미래세대들이 함께 참여했고,  
세계 각국에서 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분들을 비롯해서  
새롭게 가정을 이룬 북한 이탈 주민 부부들도 계신데,  
남북 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희망의 상징과 같은 분들입니다.

통일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통일 비전을 공유하고 통일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끈기있게 통일을 준비해나가면,  
평화통일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을 민주평통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향한 첫 걸음!!**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7월 1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제17기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행사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1만3천여 국내외 자문위원들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 정중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한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인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등 대행기관장들이 초청되어 17기 민주평통의 출범을 축하하고, 통일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멀리, 멀리 퍼져라 통일이지!**

**1부 식전행사**



백령도와 제주도는 물론 멀리 해외에서까지 '민족의 염원' 통일을 이루는 초석이 되겠다 각오로 이른 아침부터 출범회의장에 도착한 자문위원들은 한껏 상기된 표정이었다. 대규모 인원이 자리한 만큼 이동시간과 안전을 고려해 회의장 착석은 지역별로 이루어졌다.

본 행사에 앞서 마련된 식전행사에서는 민주평통의 기능과 역할이 소개되고, 통일인터뷰 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어 한국의 소리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타악기연주자 최소리의 공연 팀이 무대에 올라 '아리랑 파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역동적인 타악기로 연주되는 우리 전통민요 아리랑 소리에 맞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다양한 춤사위가 무대 위를 수놓았고, 공연이 고조될수록 행사장의 분위기 역시 뜨거워졌다.







▲ 국방부교향악단

▲ 최소리 무용단의 '아리랑 퍼포먼스'

▼ 가수 이자연의 열창



■ 팝핀현준



■ 국악인 박애리

이어, 가수 이자연은 “통일이 되어 평양에서 공연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란다”는 소감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열창했다. 특히, ‘서울을 지나 평양을 지나 세계로 나가자’는 노랫말에 객석에서는 ‘웁소’라는 추임새가 터져 나왔다. 또, 자신의 히트곡인 ‘당신의 의미’를 부를 때는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북한이탈주민 신혼부부들이 함께 따라 불러 눈길을 모았다.

팝핀현준과 국악인 박애리 부부 역시 흥겨운 우리 국악가락과 팝핀이라는 현대적인 춤을 접목한 새로운 ‘정선아리랑’을 선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회경 중령이 지휘를 맡은 국방부교향악단의 축하연주 ‘You raise me up’, ‘라일락 꽃필적에’가 차례로 공연됐다.

## 이제는 실질적 통일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 2부 출범회의



김범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임장으로 시작됐다. 연초록빛 옷차림만큼 밝은 미소로 등장한 박 대통령은 초청인사들과 자문위원들의 환대에 화답한 후 자리에 착석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4절 완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개최를 알리는 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는 ‘당신이 일어나면 국민이 일어나고, 당신이 나아가면 국민도 나아가게 된다’며 통일을 향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를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 밝은 미소로 입장중인 박근혜 대통령



▲ 애국가 제창

## 제17기 자문위원, 8천만 국민 대통합으로 통일 시대를 열겠다

이재 박찬봉 사무처장이 '제17기 구성현황 보고'를 위해 무대에 올랐다. 이번 17기 민주평통은 16기 대비 10명이 증가한 1만9천947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과 여성, 탈북민의 참여를 늘려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또 자문건의 역량을 높이고자 상임위원회 내 전문가 비중을 높이는 한편, 해외 117개국, 31개 지회 자문위원들이 통일 공공외교에 힘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17기 활동목표인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의 구체적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보고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자문건의의 내실화와 통일준비 본격화, 통일미래인재 육성, 통합과 나눔의 평통인 상(像) 구현을 목표로 10개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다.



▲ 장미란 자문위원과 오성현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한마음 결의문 낭독

▼ 전체 자문위원이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통일준비 한마음 결의문은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자문위원과 전주시협의회 오성현 자문위원이 대표로 낭독한 후 전체 자문위원이 함께 선서했다. 또한 의장인 박 대통령으로부터 황재길 아프리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지성호 북한인권단체 대표, 김기영 2030 청년위원 등 7명의 자문위원이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 끊어진 민족의 허리가 이어질 때, 대한민국 역시 비상한다

이재 박근혜 대통령이 대외사를 통해 지난 70년간 전쟁의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참석한 17기 자문위원들의 통일의지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 후 "지난 70년간 끊어졌던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고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될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크게 비상할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경제와 평화', '체제안정과 경제발전' 모두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과정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핵이 체제를 지킬 것이라는 미망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함께 평화통일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 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대회사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한 국내외 지역은 물론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진 사회통합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민주평통의 역할을 강조하며, "분명한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끈기 있게 통일을 준비해나가면 평화통일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그 길을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70년간의 간절한 염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곧바로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통일은 대박이다'를 외치며 파도타기를 하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행사 전에 지역별로 구분해 전달된 파랑, 노랑, 빨강, 초록의 서로 다른 색의 부채를 손에 든 자문위원들은 큰 함성으로 통일외지를 다졌다. 행사의 대미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북한이탈청소년 등이 합창단원으로 활동 중인 와글와글 합창단, 아름드리 합창단, 통일하모니 등과 한 목소리로 부른 '우리의 소원'이 장식했다. 합창단원들은 물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원이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민족의 간절한 소망인 통일을 향한 진심 어린 바람을 전해 감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 서로 다른 색의 부채를 손에 들고 통일외지를 다지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신혼부부와 악수하는 박 대통령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난 6월 30일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가 주관한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의 주인공인 80쌍의 신혼부부가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통일의지가 담긴 대회사에 큰 환호성으로 답했으며, 박 대통령 역시 직접 손을 잡고 격려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의거, 의장의 소집으로 2년에 1회 개최되며, 이번에 선출된 제17기 자문위원은 향후 2년간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국내 1만6천669명, 해외 117개국 3천278명 등 총 1만9천947명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문을 연 제17기 민주평통. 7월 1일 17기민주평통 출범식이 열린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는 울릉도와 백령도, 제주도와 철원 등 대한민국의 동서남북 끝에서부터 멀리 해외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1만3천여 명의 자문위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출범회의, 그 가슴 뛰는 현장에서 앞으로 2년간 대한민국을 통일 열기로 들쭉이게 할 자문위원들의 기대감과 각오를 전한다.

## 대한민국의 동서남북 끝에서, 해외에서 온 자문위원들



### 박일관(경북 울릉군협의회 / 자문위원)

출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집에서 어제 오후 3시에 출발했어요. 이렇게 강한 통일 의지를 가진 많은 분들과 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17기에 처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통일준비를 위해 더 열심히 배워서 작은 역할이라도 제 몫을 다하고 싶습니다. 우리 울릉도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지역민들의 통일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특히 독도문제 등으로 외교적 마찰이 빈번할 때면 통일로 국력을 쏟아, 우리 몫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세계 속 자랑스런 통일한국이 되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최대한 힘을 보태 계획입니다.(울릉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은 출범회의 참석 후 기상문제로 이틀 뒤에 귀향했다고 한다.)







백령도에서 나오는 배편이 좋지 않아 육지로 나오는 데만 이들이 걸렸어요. 알다시피 백령도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코앞에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안보의식과 통일 의식은 그 어느 곳보다 높아요. 하지만 통일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실천을 못 했는데, 출범회의에 와보니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으로 생업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희망입니다. 통일이 되면 더 잘살게 되고, 통일로 인해

우리 민족의 한이 풀릴 것이란 희망, 그래서 통일은 희망입니다.



고기영(강원도 철원군협의회 / 자문위원)

우리 정부의 통일의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경원선 철도가 연결되는 곳,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철원입니다. 철길이 월정리 역까지 연결되면 거기서 북한 땅은 20여 킬로도 채 안 될 정도로 북한과 매우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조금씩 남북한이 하나 되어가는, 그 연결선이 되는 지역에 살다 보니 지역민들 역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통일이란 경제적으로 남북한 모두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한만 잘사는 것도 북한만 잘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사는 일 그게 바로 통일 아닐까요? 저는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자문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며 실천적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책임감으로 17기 활동에 임할 생각입니다.



임애덕(제주 제주시협의회/자문위원)



통일대박을 위해 힘찬 목소리로 시작한 17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행사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대통령의 말씀 중 평화통일을 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류 협력하겠다'는 말씀이 좋았어요. 행사 중 한반도의 호랑이를 보니 통일해서 호랑이와 같이 힘센 나라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무궁화 꽃이 한반도 전역에 활짝 피고 통일아리랑을 함께 부를 그 날을 위해 힘차게 출범하는 것을 보니 통일이 바로 문앞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8천만이 행복한 나라를 향한 통일준비 실천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지성호(서울중구협의회 / 자문위원 \* 탈북민)

'먼저 온 통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건설하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 시대 통일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잘 알게 되었어요. 평화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통일 이후 북녘땅에도 자유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일을 전후해 남북 청년 간 정서적 문화적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라오스 정글을 넘어 통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와 같은 북한 주민들이 제3국의 정글을 더는 넘지 않아도 되도록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한 지가 만 8년이 됩니다. 지금도 나의 노력 우리의 노력, 함께하는 통일준비가 될 때 통일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 이학락(남미서부협의회 / 회장)



아르헨티나에서 29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잠도 설치고 시차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 아직은 몽롱하네요. 16기에는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었는데, 지난 기수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아르헨티나의 원주민을 상대로 한 친한 인사 양성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활동을 큰 모토로 꼽았지요. 자문위원들 모두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만 북한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해야겠지요. 그게 바로 통일준비를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17기에는 남부서부협의회회장으로서 교민사회에 통일 논의와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수(전남 담양군협의회 자문위원)

평화통일이란 국민 모두의 의지가 한 곳으로 결집되었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평화통일의 의미를 알리고 통일 의지를 한데 모으려면 민주평통 안에서만이 아닌 국민 속으로 들어가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만들어야 해요. 또한 이미 남한에 정착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나 다문화가정이 잘살 수 있도록 행복한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통일준비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이날 담양군협의회는 가장 먼저 회의장에 착석했다. 박영수 자문위원은 사진 뒷줄 왼쪽 끝)





## 제17기 간부위원들의 각오와 소감

“여성들의 삶이 바로서야 통일 앞당길 수 있어”

김태현 여성부의장

사회적으로 통일대박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시점에 제17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여성부의장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 책임 또한 막중한 것 같습니다. 통일을 전후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여성들의 삶, 가족들의 삶입니다. 그래야만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통일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에 여성부의장을 맡으면서 많은 여성에게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알려 통일 의지를 심어주는 활동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여성자문위원들과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언젠가 탈북여성들의 삶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는데, 비단 남한여성 뿐 아니라 이들의 아픔까지 보듬어줄 수 있는 활동을 여성 자문위원님들과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17기에도 해외자문위원들의 다양한 활동 기대하세요”

김기철 미주부의장



미주 지역에는 20개의 협의회가 있고 남미와 캐나다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로만 10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죠. 부의장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미주지역 협의회장들을 소통시키고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통일 사업들을 점검하며 보완점을 찾아내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16기에는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셨기 때문에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광고를 자주 했고 지역정치인들에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은 서로 소통하며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등을 우리 주위, 해외 동포사회 및 거주국 주류사회에 알리려면 길을 열고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2~3세대 청년들에게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웃음).



### 강용찬(대전 중구협의회 / 상임위원)

지난 16기 민주평통은 출범 당시부터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의지가 강해 통일의식 저변확대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16기 때는 '통일 대박'이라는 대명제 아래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었다면, 이번 17기에서는 좀 더 경제적인 부분에서 탈북민지원 등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교감이나 통일 토크쇼 등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통일의식을 보다 확고히 다지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한 몫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민족이 다 잘사는 게 통일이란 신념을 갖고 있는데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이뤄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송낙인(충남 서산시협의회장)



우선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파나 계파, 지역적 이해관계로 통일의지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산시에서는 탈북민 한마당,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의 확장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꾸준히 펼쳐, 먼저 그분들 부터라도 남한 땅에 정착해서 잘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원까지 다방면으로 물심양면 도울 계획입니다.



### 성낙헌(경기도 시흥시협의회장)



17기에는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고 박근혜 정부의 4대 기조 중 하나인 통일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흥시협의회 경우 생활 속에서 통일을 이뤄갈 수 있는 통일준비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1:1멘토링, 합동결혼식 추진 등을 위해 사업계획을 편성해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골든벨을 가장 먼저 시작한 협의회로서 통일미래 인재육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사진 우측 두 번째).



해외에 살다보니 출범회의에 참석하기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는데,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북한'하면 자연스럽게 반공의식에 대해서만 배웠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범회의에 참여했던 경험은 앞으로 통일준비를 해나가는 데 꼭 필요한 공부가 됐다고 생각해요. 해외의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통일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문위원인 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자·초청손님들이 본 출범회의]

출범회의 행사 보며 통일을 꿈꿨어요!

♥ 남북청년합창단 '통일하모니'

조은영(지휘)

남북청년합창단 통일하모니는 남에서 자란 청년과 북에서 자란 청년들이 모여 합연을 하는 팀으로 출발했어요. 6개월 단위로 멤버를 새로 선출해서 기수별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4기, 스물다섯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단독콘서트를 했었고 시민들이 모이는 작은 무대를 찾아다니며 계속 연주활동을 해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연주를 하기 위해 모였지만 이후에는 남북한 친구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내는 '우리만의 작은 통일'을 목적으로 모임이 지속되고 있고요. 지난주엔 임진각에서 작은 콘서트를 하고 왔는데, 출범회의와 같이 통일을 염원하는 큰 행사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 ♥ 다문화가정 어린이합창단 '아름드리 합창단'

리더원 최수하

6학년 리더원입니다.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북한 친구들을 만나면 동대문과 남대문엘 데려가서 전통옷 파는 가게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원래 꿈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뮤지컬 배우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더원). 저는 1학년 최수하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합쳤으면 좋겠어요. 독일나라처럼요. 북한친구들을 만나면 에버랜드에 데려가 함께 놀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좋은지 물어보고 싶어요.



## ♥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신혼부부

박영남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딸이 태어나는데 민주평통에서 결혼식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요.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지 못해서 평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합동결혼식을 할 때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걸 참으면서 잘 했습니다. 통일이 하루빨리 되면 좋는데, 언제 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의 말씀처럼 대화로 통일을 열어나갈 수 있게 남한 측은 다

측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힘든 것 같아요. 남한 사회에는 차츰 적응해가고 있어요. 통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이 된다면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 8천만의 행복을 위한 '통일 엔진' 17기 청년위원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은 남한사람 일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주민들과 남한주민들이 함께 통일을 열망하고,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밑그림을 같이 그려나갈 때 비로소 완전한 통일이 된다. 민주평통 17기 청년자문위원들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북한청년들의 가슴에 '자유'라는 이름의 희망을 심고, 남한에서는 먼저 온 탈북청년들과 이곳 청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통일 엔진'을 견재 달려보겠다는 청년자문위원들. 이들과 함께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17기 청년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7월 통일토크 참가자

#### 박찬봉 사무처장

청년들의 '통일지지'를 만유인력처럼 끌어들이어 함께 소통하면서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 김동현 청년자문위원(NAUH 사무국장)

탈북난민을 구출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청년활동가.  
남북한 청년들, 세계 청년들과 연대하며 통일의 길을 걷고 있다.

**김지현 청년자문위원(한국외대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청년들의 통일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실천 중.



**조미영 청년자문위원(성균관대 석사과정 / 탈북대학생)**  
대북방송 리포터로 활약하면서 북한청년들에게 북한밖 소식을 들려주고 있으며,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며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허정필 청년자문위원(현대자동차연구소 대리)**  
직장인이자 이제 막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바쁜 와중에도 북한 체육 관련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며 통일한반도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 17기 민주평통 청년자문위원으로서의 포부

**박찬봉 사무처장** ▶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지만 불완전한 광복이기에 통일을 통해서 광복을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하루빨리 평화 통일을 이뤄서 8천만이 행복한 멋진 나라에서 살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17기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서 포부가 있다면?

**김동현** ▶ 북한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통일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7기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통일 북한인권 활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많이 합류해 있으신데, 같이 소통하면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조미영** ▶ 아직 학생신분이기는 하지만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새터민 청년들과 올 6월에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했으니까 함께 활동하면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 지난 16기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젊은이들이 통일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허정필 ▶ 민주평통의 각 지역협의회를 집에 비유한다면 우리 청년자문위원들은 앞으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청년자문위원들 스스로가 '평화통일'에 무게중심을 잡고 서서 국민에게 평화통일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위원이 말하는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은?

박찬봉 사무처장 ▶ 지금 민주평통에서는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남한사람이든 북한주민이든 통일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느낌 없이 모두가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청년자문위원들이 각자 그리고 있는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요?

김지현 ▶ 통일이 되면 북한은 해양으로 나아갈 길을 얻을 것이고, 남한은 중국과 러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갈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진정한 동북아시아의 허브가 되어서, EU에 버금갈만한 그런 동북아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통일한반도가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허정필 ▶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바로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안하이웨이(아시아 32개국을 그물망처럼 엮고 그 끝을 유럽대륙으로 연결하는 14만여km의 도로망)와 같은 도로망이나 철도를 북한과 연결하기만 하면 물류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발전 측면에서 유례없이 중요한 기회가 되겠지요. 북한과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적 소통을 어느 정도 이룬다면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까지 가까운 생활권이 될 것이고 경제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박찬봉 사무처장 ▶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시는데, 자동차 타고 휴전선 넘어 중국 대륙과 시베리아까지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조미영 ▶ 저는 북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통일은 그냥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제 이산가족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평평 울었어요. 통일은 그리운 얼굴을 만나고 북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는 거죠. 말 한마디 잘 못 하고, 노래 한 곡 잘 못 들었다가 잡혀가는 일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요. 남한에는 통일이 젊은층의 취업난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야 할까?

**박찬봉 사무처장** ▶ 현재 남한은 섬보다 더 고립돼 있어요. 섬은 육로가 없어도 뱃길과 하늘길이 다 열려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마저도 다 막혀 있으니깐요. 통일이 된다면 그런 장애물 없이 마음껏 오갈 수 있으니 우리 삶의 공간도 넓어지고 경제도 더욱 발전하겠지요. 하지만 정책차원에서 통일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통일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힘들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 통일에 다가가야 하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연평해전’처럼 언제든지 충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핵까지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되, 북한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려서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요구들이 더 커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이뤄야 할까요? 조미영 자문위원은 남북한 양쪽 사회를 경험해보셨지요?

**조미영** ▶ 네, 북한의 경우 이제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이나 시골까지도 한국의 드라마가 퍼져 있어요. 하지만 저는 라디오라는 매체가 북한 청년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라디오 대북방송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북한에 한국의 소식 등을 내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 남한으로 오는 청년들을 보면 라디오를 들고 탈북한 경우가 꽤 많아요. 라디오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자 북한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새터민인 제가 들어도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통일하자’고 외치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행복해야 해요. 북한은 북한대로 변화해 가고 여기에서는 남한사람과 새터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김동현** ▶ NAUH를 통해 남한으로 온 탈북민이 현재 북한의 변화상을 이야기해주면 저희도 놀랄 때가 많아요. 조미영 자문위원의 말처럼 특히 라디오가 효과가 크단 얘기들도 하고요. 라디오는 숨어서 듣기도 편하고 논픽션이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북한 역시 국제사회 여론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대화의 창은 계속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현** ▶ 일부 남한 사람들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 ‘이왕 남한에 왔으면 잘하면 되지 왜 못 해?’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야 해요. 이게 바로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 우리가 해야 할 통일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박찬봉 사무처장** ▶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은 물론 우리 사회도 변화해야 해요. 북한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먼저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서 이 행복바이러스가 북한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통일에 대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조미영** ▶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도 해요. 요즘 아이들이 통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데, 통일교육까진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불러일으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마련해 줄 필요도 있고요.

**김동현** ▶ 청년은 통일의 주역이자 통일한반도에서 살아갈 당사자예요. 통일의 경제적인 효과 등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통일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 서로 토론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로들을 열어 놓으면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생각지 못했던 매우 창의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와 함께 남한에 먼저 온 북한청년들과 남한청년들이 자주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김지현** ▶ 사실상 통일 준비라는 건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 주민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른 서로를 알아가고 인정해야 할 텐데 이때를 대비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허정필 ▶ '강남스타일' 같은 뮤직비디오 하나가 전 세계 1억 인구를 뒤흔든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 통일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이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한 요즘 학생들은 대학 진학 때 봉사점수가 필요하다 보니 꽤 민감하던데 남북 간의 생각과 이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봉사점수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통일교육을 받고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나 교류를 통해 봉사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관광인데,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 간 잦은 접촉이 이뤄진다면 실질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백 마디 말보다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청년위원들의 역할은?

박찬봉 사무처장 ▶ 끝으로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을 위해 청년자문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조미영 ▶ 제 주변 사람들에게 북한사람도 남한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단 걸 알리는 게 1차 목표예요. 또 어떤 새터민이 북한에 있을 때 제 방송을 들었다고 말해주셔서 매우 뿌듯했던 경험이 있는데, 북한 주민에게 TV보다 더 중요한 매체가 라디오니까, 라디오를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북한 청년들에게 저는 '우리가 왜?'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자고 해요. 왜 우리는 이 음악을 들으면 안 될까, 왜 우리는 청진에서 무산을 갈 때 꼭 여행증명서가 꼭 필요할까. 북한 청년들이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북한청년들의 가슴에 통일을 향한 열망이 커질 거라 생각해요.

박찬봉 사무처장 ▶ 네. 북한에 있는 청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필 ▶** 민주평통 17기 청년자문위원으로서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땅의 청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더 크게,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해요. 지역 안에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런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이 청년자문위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동현 ▶** 일단은 서로 편견을 깨는 게 중요해요. 편견을 깨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관심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만나서 소통하면서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청년자문위원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전후의 피폐했던 상황에서 세계 경제대국을 만들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뤄내신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청년자문위원들도 배우고 공부하며 전문성을 쌓아야 돼요. 통일 과정도 그렇고 통일 이후에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온고이지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 ▶** 통일의 첫 단계는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키워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추진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부 시책에 맞는 통일교육이 필요한데, 저와 같은 연구자들은 뒤에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면을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청년위원으로서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라도 한 시간 정도 스피치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민주평통은 '8천만이 행복한 통일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령별, 세대별, 지역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구체적으로 통일 준비를 실천해나가는 에너지의 결집체이다. 국내외의 젊은 자문위원들의 패기·기백·열정이 기성세대 자문위원들의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만나면 그 힘은 두 배, 아니 몇 배로 증폭될지 모른다. 통일을 위한 터보엔진이 될 제17기 청년자문위원들의 당찬 활약을 기대해 본다.

<글/사진. 기자희>



## 민주평통 대학생기자단 출범회의 가다!

우리 사회 통일운동 현장 곳곳을 누비며 희망소식을 전하고 있는 민주평통 대학생기자단이 지난 7월 1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동행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들의 눈에 포착된 감동의 현장을 기자단의 기사로 전해드립니다.

### 통일준비 한마음!



지난 7월1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제 17기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평통 대학생...

<김연경 기자>

[자세히보기 >>](#)

###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출범회의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대학생기자 박유진입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의 필요성...

<박유진 기자>

[자세히보기 >>](#)

### 해외지역! 소개 좀 해주겠니~?



민주평통!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국내지역회의와 해외지역회의로 나누어져 있는...

<이다영 기자>

[자세히보기 >>](#)

### 통일준비 실천하는 자문위원, 꽃보다 아름다워!



2015년 7월 1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은 인산인해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장지훈 기자>

[자세히보기 >>](#)



## 통일 바라기, 민주평통자문위원을 만나다!



7월 1일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는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통은 국민의 통일 의지와...

<박다솜 기자>

[자세히 보기 >>](#)





## 통일준비 한마음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지난 7월 1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평통 대학생 기자단 자격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통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고 통일을 기원하는 많은 공연들을 관람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 나갈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연경 기자



행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역할자분들이 보였는데요. 문득 이분들은 행사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취재를 위해 행사장 뒤편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국군교향악단 서현호 상병**

오늘 행사에서 애국가와 모든 배경음악의 반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통일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대박!



**단대초등학교 5학년 3반 송수민**

저희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아름답리 합창단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어른들이 통일을 중요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우리나라니까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통일은 정말 중요해요!



행사가 곧 시작되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은 핵이 체제를 지킬 것이라는 미망을 하루 속히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날의 행사를 시작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함께강자 통일준비 앞당기자 통일대박

##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출범회의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대학생기자 박유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통일의 디딤돌을 만들고자 전국 각지에 제신 자문위원들과 함께 제17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다소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일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당일 행사장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식전행사인 최소리의 아리랑퍼포먼스와 박애리, 팝핀현준의 퓨전 국악공연을 보면서 '국악과 팝핀이 다르지만 저렇게 잘 어울릴 수 있구나, 통일도 한민족의 화합과 축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유진 기자



본회의에서 제17기 민주평통은 '8천만이 함께 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활동목표로 자문건의의 내실화, 통일준비 본격화, 통일미래인재 육성, 통합과 나눔의 평통인상(像) 구현 등 4개 활동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출범회의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통일이 한 걸음 더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기성세대들에 비해 통일에 무관심한 2030 세대들을 많이 봐온 저로서는 이번 출범회의에서 통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사소개보다는 자문위원님들의 하나 된 마음을 대학생들과 국민에게 전하고 싶어서 미니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견학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금강산 견학 등을 통해 북한의 참상과 실상을 대학생들이 직접 보며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2030 세대와 6070 세대가 서로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세대 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 서울 영등포협의회 장경태 자문위원 -



“요즘 젊은 친구들이 통일에 무관심한 것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중·고등학생 나아가 대학생들도 통일교육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일이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져 무궁무진한 발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서울 동작구협의회 김길연 자문위원 -



새미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해주셨어요~



“저 또한 통일에 대해 무관심했지만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라는 기회를 통해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2030 세대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적대감을 갖지 않고, 기성 세대들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며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 서울 강남구협의회 고병기 자문위원 -

## 해외지역! 소개 좀 해 주겠니~?

민주평통!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국내지역회의와 해외지역회의로 나누어져 있는 민주평통! 그 중 국내지역회의의 활동들은 여러 소식지 등을 통하여 자주 만나볼 수 있었지만, 해외지역회의의 활동들은 쉽게 접해 볼 수 없었는데요. 7월 1일에 있었던 17기 출범회의! 그곳에 참여하신 해외지역회의 회장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지역회의의 여러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다영 기자

• 미국 워싱턴 •



워싱턴협의회 회장을 맡은 황원균입니다. 16기에 이어 17기에도 출범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보다 더 통일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현지인들이나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을 하면서, 해외동포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동포분들에게도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행사는 3월에 '윌리엄스 버그'라는 곳에서 개최한 통일세미나였어요.

150명 정도가 참여한 이 세미나에서 현지 주민들이 60% 이상 참여해주셨습니다. '윌리엄스 버그'는 시골인데, 그곳의 많은 미국 분들에게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을 설명해줄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주에는 총 20개의 협의회가 있어요. 캐나다에 2개, 남미에 3개, 그리고 나머지 15개가 미국에 있는데, 세미나 등과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서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미주 간에도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서로 통일에 관해서 토론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일본 오사카 •

일본 근기협의회장 권오일입니다. 17기 출범식에 와보니까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이고, 이런 활동들도 하나씩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통일도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민주평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회도 열고, 자체적으로 자문위원들과 함께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한국의 대학 교수님들을 초청해 오사카 본부에서 평화통일 관련 강연회를 열었는데, 200여 명 정도의 재외동포 및 일본인들이 참가해 평화 통일 염원 노래도 부르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 중국 상하이 •



중국 상하이협의회장 이상철(좌측), 중국지역회의 간사 이동한(우측)입니다. 17기 출범회의를 통해 새로운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후세들에게도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실제 와서 보니 너무 가슴이 벅칩니다. 특히 중국지역 교민들에게 정체성과 역사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깊어지네요.



상하이협의회는 특히 청년들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일골든벨 행사를 하고 있고, 청소년통일축제의 일환으로 통일 글짓기 대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통일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요. 지난 4월 윤봉길 기념관 야외에서 있었던 통일청소년축제에서는 골든벨과 글짓기 행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야외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렵게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5 월에는 아시아, 유럽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17 기에도 후세들에게 통일에 관해 알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 • 카자흐스탄 •

중앙아시아협의회장 이재완(좌측)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이란 바로 우리의 국력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7기 출범회의는 재외 동포들과 국민 모두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아시아협의회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아제르바이잔. 총 7개국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5월 2~3일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한민족 축제를 했는데, 그때 우리 고려인 재외동포 및 한인교민들과의 문화 축제, 대학생 통일퀴즈대회, 심포지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어요. 중앙아시아협의회는 7개국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통일 관련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 • 독일 •



북유럽협의회장 최월아입니다. 17기 출범회의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이나 감격스럽습니다.

북유럽에서는 현지 주요인사들과 한인들이 포럼을 준비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골든벨, 컨퍼런스 및 강연회를 비롯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0일 열린 청소년 골든벨 행사에서는 만점이 4명이나 나왔습니다. 한국 결승전에 모두 다 데려오고 싶었는데,

지역별로 정해진 인원수가 있어서 다 데려오지 못해 너무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해남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게 돼 베를린에서 모임을 하면서 해남군협의회 자문위원들과 간단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미주, 아세안, 유럽, 일본, 중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외 지역회의 회장님들 몇 분을 만나보았는데요,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들을 통해 하루 빨리 통일이 되길 염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일이란 바로 우리의 국력이고, 우리의 미래'라고 해주셨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저희 대학생 기자단도 평화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통일준비 실천하는 자문위원, 꽃보다 아름다워!

2015년 7월 1일 올림픽 제조경기장은 인산인해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이 인파의 정체는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기 출범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국내외 자문위원과 초청인사들이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출범회의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데 그중 특이한 이력을 가진 자문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지훈 기자 :**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평통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지훈입니다.

**장휘 위원 :**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태백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장휘(22세)입니다.

**지훈 기자 :**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휘 위원 :** 아 네(웃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저는 자문위원에 위촉되기 전 미스 강원 선발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어요.

**지훈 기자 :** 흔치 않은 경력이시네요. 어떻게 17기 자문위원이 되셨나요?



**장휘 위원** : 고등학교 3학년 때 민주평통 태백시협의회에서 주관한 동해 해군 제1함대 견학을 다녀왔고, 민주평통 통일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해 중국 항일의병유적지와 백두산 견학을 다녀왔어요. 이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또 민주평통-반크의 글로벌 통일공공외교대사 2기 외교대사로 임명 받기도 했구요. 민주평통에서 주관한 알차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다가, 올해 제17기 태백시협의회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지훈 기자** : 미스 강원 선발대회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휘 위원** : 2015 미스 강원 선발대회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도 왜 꿈이 대북 전문가냐?, 미인대회와 북한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사실 통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리 국민의 인식 개선, 그리고 통일공감대 확산이잖아요. TV 프로그램에 탈북 이후 남한에 정착하신 예쁜 여성분들이 출연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과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미인대회 수상자도 이처럼 통일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

**지훈 기자** :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신가요?

**장휘 위원** : 우리나라 최초 여자 대통령이자 민주평통 의장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과 더불어 국가의 많은 중대사를 다루시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 이번 제17기에 여성 자문위원들이 지난 기수보다 많이 위촉되어 여성의 역량이 크게 확대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 또한 훗날 함께 맞이할 통일한국에서 8천만이 행복하도록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멋진 여성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지훈 기자** :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통일이란?

**장휘 위원** : 통일은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통일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인거죠. 힘든 날도 행복한 날도 있겠지만 통일을 향한 해피엔딩을 위해 8천만 국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모습, 또 통일한국의 화려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통일 한국'이라는 행복한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훈 기자**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통일바라기, 민주평통자문위원을 만나다!

7월 1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는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통은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설립된 범국민적 통일기구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올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자, 이제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박대شم 기자

01

## 대전 서구협의회 신현덕 자문위원



### Q.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되신 이유는?

평소 통일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실제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없단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공감을 나누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 Q. 통일에 대한 한 말씀?

많은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다 같이 손을 잡고 통일을 바래왔는데, 요즘에는 통일이 되지 않아도 좋겠다는 인식이 많더라고요. 물론, 통일 이후 화합을 이루는 일이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하는 많은 활동에 젊은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통일 의식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 Q. 미국에서 하고 있는 민주평통 활동 소개

한국의 지역협의회 못지않게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해5도에 들려서 그 지방 학생과 탈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통일소망 연날리기 및 걷기대회, 통일골든벨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해왔습니다.

### Q. 해외 사람들의 민주평통 활동에 대한 반응?

오렌지카운티는 한인 동포들이 25만 명정도 살고 있는데, 모든 동포들이 민주평통의 활동을 후원하고, 함께 공감하고 있지요. 모두 하루속히 통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Q.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외국에 나가면 애국심이 더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해외동포들은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국내 통일논의 흐름이나 활동들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외 간에 통일에 대한 교류,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2

## 미국 오렌지카운티 · 샌디에고협의회 권석대 회장







이 외에도 많은 자문위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 그리고 해외까지 여러 지역에서 오셨지만, 다들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행사 중 '통일준비 한마음 파도타기 퍼포먼스'와 '통일 대합창'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탈북민 합동결혼식을 한 80쌍의 부부가 참석했는데 출범회의 행사가 진행되면서 탈북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통일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협의회의 많은 통일염원 활동들을 기대합니다.



## 제17기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 개최

통일준비 위한 정책건의와 통일운동 당부

“제17기 민주평통이 보다 폭넓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통일을 이루는 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도록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한껏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대통령(간부위원 임명장 수여식 중) -

### 박근혜 대통령 신임 간부위원 임명장 친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6월 23-24일 이틀간 서울 흥은동 소재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제17기 민주평통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와 신임 간부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경대 수석부의장과 시도 부의장을 비롯해 운영 상임위원, 국내외 협의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합동회의에 앞서 민주평통 의장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신임 간부 자문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현경대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71명의 대표 간부위원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평통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플뿌리 통일운동’을 적극 펼쳐온 것으로 안다”면서 그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청소년 통일공감대 확산, 탈북민 정착지원 활동 등에 대한 민주평통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에 대해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탈북청소년 1:1 멘토링 등 ‘통일맛이 하나다섯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 법률, 장학, 취업분야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어 김서현 인권법제

간사와 모경책 통영시협의회장이 소감문발표를 통해 제17기 간부 자문위원으로서 솔선수범해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 현경대 수석부의를장 ‘통일에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 당부

오후부터 진행된 ‘국내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회의’는 현경대 수석부 의장의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 기초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현 수석부 의장은 “한민족 모두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정, 자신감 을 가지고 준비, 추진할 때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평화적 통일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해 가 상충되지 않도록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씩 합의한 뒤 그 다음으로 나아가자는 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며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통일이 어떤 대박을 가져올 것인지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찬봉 사무처장은 ‘제17기 민주평통 활동방향’에 대해 보고했 다. 박 사무처장은 ‘8천만이 함께 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목표로 △ 자문건의 내실화 △통일준비 본격화 △통일미래인재 육성 △통합과 나눔의 평통인 상(像) 구현 등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역부의장 주재로 열린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제17기 자문회의의 활동목표와 연계한 지역조직 운영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현경대 수석부의를장



▲ 박찬봉 사무처장



▲ 지역별 오리엔테이션





## 홍용표 통일부 장관 “새로운 통일시대 열어달라”



회의 둘째 날인 24일 첫 번째 순서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반도 경제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해 현 대북정책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홍 장관은 “남북상호간 약속과 이익, 제도 등에 기초한 신뢰를 쌓아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며, 작은 통일에서부터 정치적 큰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뢰프로세스의 흐름”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올해는 분단 70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마음으로 통일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자문위원들이 지속적인 협력과 협업을 통해 통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이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독일과 다른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10년간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통일과정을 지켜왔던 이 총장은 독일통일 당시 상황과 한반도 현실을 비교하며 △분단의 원인과 역사 △통일관과 전제조건, 통일정책, 경제적 격차 △종교와 사고구조 △국제환경 등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내 지역협의회장들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전수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통일준비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 17기 민주평통 이렇게 이끌어하겠습니다!



송현만 전북부회장

### “지역협의회 회장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기 전주시협의회장에 이어 이번에 17기 부의장으로 전라북도를 맡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지만, 회장들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지역회의 사업을 창의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기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간의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 속 통일준비를 실천해 나가며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한데 모으려면 지역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하니까요. 따라서 전북지역회의는 협의회장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통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7기엔 통일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통일'이란 단어가 소망의 다른 이름이었고 늘 생활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부터 멀어졌어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야 당연히 통일마인드가 잘 돼 있지만, 다른 일반인들과 만나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기에는 통일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려 해요. 다양한 통일운동을 통해 학생, 주부, 청년 등 국민 생각 저변에 확고한 통일의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서귀포시협의회장



이영재  
함양군협의회장

### “지역민과 함께 생활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10년 가량 활동해 왔고 간사로서 실무를 해왔기 때문에 자문위원 및 협의회장의 역할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협의회 자문위원들을 잘 화합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전파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행사를 활발히 개최함으로써 국민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국 위해 목숨바친 애국지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의장이신 대통령과 함께 평화통일에 대해 마음을 다졌을 때 마음 속으로 '통일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졌는데, 통일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멀리 있는 고흥군협의회에서부터 통일의 불꽃이 피어오르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또한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자문위원간 화합을 유도하면서 운명처럼 다가온 이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볼 계획입니다.



김정설  
고흥군협의회장





## 통일 열망 안고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다 해외간부위원 워크숍 개최

30여 시간을 비행해 도착한 조국 한국. 브라질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제17기 간부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해외지역 자문위원 110여 명이 한국을 찾았다. 재외 동포사회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세계인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민간 공공외교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자문위원들. '17기 자문위원 임기 중에 통일이 이뤄져 대동강변으로 모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덕담처럼 이들 자문위원들의 열정으로 통일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길 바래본다.

### 해외 43개 지역협의회 110명 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6월 29일(월)부터 7월 1일(수)까지 워커히호텔에서 '제17기 해외간부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일본, 중국, 미주, 유럽, 아세안 등 5개 지역회의 부의장과 43개 지역협의회 장을 비롯해 간사, 지회장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의장인 박근혜대통령을 대신해 해외간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재외 동포사회의 통일여지를 높이고 통일에너지를 결집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현 수석부의장은 "해외 자문위원들은 거주국 주류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기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그 나라 국민들과 경계에 잘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세계인과 각국 정부가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 외교관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통일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견인해 내는 것”

‘통일·외교정책 현안 보고’ 시간에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북한의 최근 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윤덕민 원장은 통일을 위한 국민의 컨센서스가 중요하며 남남갈등 극복,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 북한 주민의 마음 얻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아울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하고 이를 위해 중국·일본·러시아·미국의 도움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 박찬봉 사무처장

한편 박찬봉 사무처장은 2일차 워크숍 오찬에서 “민주평통이 지금은 통일준비에 있어 어느 조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통일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일을 견인해 낸다는 생각으로 통일준비를 위해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 5개 지역회의(미주, 일본, 중국, 아세안, 유럽지역)와 117개국 43개 지역협의회, 31개 지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자문위원 3천278명을 위촉했다.

### 해외간부자문위원들의 도전과 각오

## “호주 북한인권법 제정 통해 인권개선 촉구할 것”

### 이숙진 호주협의회회장

호주협의회는 파푸아뉴기니, 피지까지 총 1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 16기에는 ‘현재 속해 있는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포사회 역량강화,





주류사회 내 공감대 확산, 자문위원들의 자긍심 제고 등을 기치로 내걸고 활동했어요. 특히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16기 출범식 때 외교장관을 초청했었는데, 이를 통해 호주 대법원장인 마이클커비 위원장(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연결돼 북한인권조사 보고서를 동포사회와 주류사회에 알리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17기에도 쉽지 않겠지만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호주 의회에 재상정 해보려고 해요. 또 각 주를 돌면서 호주 자문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이러한 활동들이 북한 인권 개선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 “축적된 경험 바탕으로 17기엔 활동영역 넓힐 것”

### 황재길 아프리카협의회장

지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겨울 방학이어서 교민들이 한꺼번에 한국으로 나오다 보니 티케팅을 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막상 와보니 즐겁네요. 아프리카협의회는 그동안 남부유럽협의회에 속해서 활동해오다가 지난 16기 때 처음 아프리카 54개국이 단독협의회로 독립을 했지요. 17기에는 조금 발전해서 아프리카 서부지회와 동부지회 등 2개 지회가 설립됐고 총 59명의 자문위원들이 임명됐어요.

16기 때 협의회로 독립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인권사진전이나 자문위원 워크숍, 북한 실상을 알리는 강연회 등 일반적인 행사들도 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은 '오픈도어'와 함께 북한 지원 활동을 한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세계의 억압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단체로, 남아공에서 3대 대도시 200명 기업인들을 초청해 북한 지하 교회 돕기 후원모임을 했는데 우리 협의회는 통역이나 모금활동을 같이 지원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북한 주민을 돕는다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17기에는 경험을 좀 쌓았으니 우리의 활동 범위를 넓혀 보려고 해요. 한국의 날, 광복절 행사, 바자회, 한글학교 등 모든 교민 모임에 참가해 왜 통일이 절실히 필요한지 알릴 계획입니다. 대사관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통일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집안에 아픈 형제가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힘들어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족이니까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고요. 우리 식구니까 한 핏줄이니까 서로 돌봐야 한다는 심경으로 따뜻하게 대하면서 통일이 올 때까지 정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 “한미여성포럼·청년포럼 열어 북한인권 문제 알릴 것”

### 이수잔 시애틀협의회장



시애틀협의회에서는 지난 기수 동안 20여 개의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어요. 가장 큰 목표는 차세대 통일교육이었는데, 청소년 통일골든벨, 리더십컨퍼런스, 통일강연회를 겸한 리더십 캠프 등을 개최해 차세대들이 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특히 두드러진 활동은 주류사회 대학생들에게 북한인권 유린의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북한동포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평화통일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진행했기 때문에 차세대 뿐 아니라 주류사회의 일원이 될 미국 대학생들도 다 같이 한반도 통일에 힘을 보태도록 노력했고 굉장한 보람을 느꼈어요. 제17기 협의회장으로 다시 임명받았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미청년 포럼과 한미여성 포럼 등을 열고 싶어요. 미 주류사회의 지도자들과 한인 여성리더들, 민주평통 여성자문위원들이 함께 한미 포럼을 영어로 하면 주류사회까지 같이 파급력을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2세인 청년들도 훌륭한 인물이 많은데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한미포럼을 개최해 북한인권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송파구협의회, 북한이탈주민 100쌍 합동결혼식 열어





서울 송파구협의회(회장 윤오현)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함께 6월 30일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에서 북한이탈주민 100쌍 합동결혼식을 치렀다. 광복 70년을 맞아 열린 이번 합동결혼식에서 백년가약을 맺은 이들 가운데 '북남북녀' 부부는 60쌍, 외국인(중국인 등)과 북한이탈주민 부부는 30쌍, '남남북녀' 부부는 10쌍이다. 이들은 결혼식을 마친 후 리베라호텔에서 민찬 및 숙박을 한 뒤 다음날 오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관람했으며, 오후에는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통 출범회의에 참석했다.

### 남미서부협의회, 통일골든벨 행사 개최



남부서부협의회는 6월 30일 재야 한국학교에서 제1회 통일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한인 및 현지인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통일골든벨에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사용해 대회를 치렀으므로 아르헨티나의 한인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대회의 우승을 차지한 박창대 학생에게는 상패와 함께 한국 왕복항공권을 지급했고, 그밖에 모든 수상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 광진구협의회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영화제' 열어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권영선)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과 함께 6월 2일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에서 '2015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영화제'를 열었다. '북한 애니메이션 특별상영회'와 '영화, 북한을 보는 또 다른 시선' 토크콘서트로 구성된 이날 통일영화제에서는 '오누이와 나무꾼', '개미와 왕지네', '불씨를 찾은 아왕녀' 등 세 작품의 북한 애니메이션이 상영됐으며, 토크콘서트는 '북한 영화와 젠더', '영화, 북한을 보는 시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 경기지역회의, 탈북민 특별보증 업무협약식 체결

경기지역회의(부의장 박해진)는 6월 16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기도 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경영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취업·교육 등의 정착 지원 △법률·금융상담 등의 자문 지원 △사업자 특별보증 등의 사업운영자금 지원 △기타 기관 간 협의회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등을 전개해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및 자활을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탈북민이거나 탈북민의 배우자가 사업자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중고등학교 역사·통일골든벨 시도 본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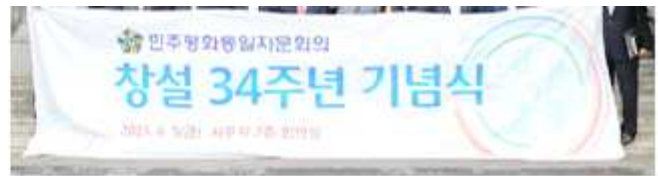
고등학생 역사·통일 골든벨,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시도 본선대회가 서울을 비롯해 경북, 인천, 강원, 경남, 제주 등 각지역에서 개최됐다. 특히 고등학생 역사·통일골든벨은 시도 본선대회가 완료되어 오는 7월 19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최종 결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BS-1TV 도전! 골든벨 '광복 70주년' 특집 통일골든벨 전국 결선대회는 8월 16일 오후 7시 10분부터 TV를 통해 방영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설 34주년 기념식 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6월 5일 사무처에서 34주년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현경대 수석부 의장과 박찬봉 사무처장 등 사무처 임직원들은 서른 네 번째 생일 맞아 창설 취지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주평통이 해야 할 역할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회 등



▲ 충남 천안시협의회



▲ 부산 연제구협의회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김승태)는 6월 1일 천안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염원 및 시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부산 연제구협의회(회장 이주환)는 4일 대항기관장 등 주요인사,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5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대화'를 열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경북 예천군협의회

▼ 충남 보령시협의회



경북 예천군협의회(회장 변장우)는 6월 2일 유천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실시했으며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는 5일 청라중학교 학생과 교사,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통일 염원의날 행사'를 열었다.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조진남)는 3일 운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1일 통일교실'을 개최했으며 경기 동두천시협의회(회장 안민규)는 4일 신흥중학교 학생, 교사와 함께 제3차 '2015년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 이야기' 행사를 가졌다.



▲ 경기 김포시협의회



▲ 경기 동두천시협의회





▲ 충북 괴산군협의회



▲ 강원 양양군협의회

충북 괴산군협의회(회장 박용호)는 5일 성신유치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현충일을 기념해 '태극기그리기 체험'을 했으며 같은 날 강원 양양군협의회(회장 김연홍)는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통일염원 풍선 날리기'를 행사를 열었다. 전남 보성군협의회(회장 김길두)는 8~9일 별교중학교 학생, 교사, 직원 등과 함께 '제8차 청소년 통일염원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 전남 보성군협의회



▲ 경기 구리시협의회



▲ 전남 완도군협의회



▲ 경기 가평군협의회

경기 구리시협의회(회장 김종태)는 16일 토평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개최했으며 같은 날 전남 완도군협의회(회장 최번부)는 16일 완도수산고등학교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안보 강연회'를 열었다.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김기복)는 19일 호국 보호의 달을 맞아 '북한 바로알기'란 주제로 방일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준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 충남 청양군협의회



▲ 제주 지역회의

▼ 경기 화성시협의회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17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청양 화성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 공감 북한음식 문화체험'을 개최하고 감자떡, 평양냉면, 두부밥 등을 시식했다. 제주 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는 21일 관내 통일동아리 합동행사로 '제주지역 대학생이 보는 광복·분단 70년 그리고 통일의 길' 행사를 개최했으며,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강대인)는 24일 비봉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1일 통일교실'을 열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전북 지역회의



▲ 경기 부천시협의회

전북 지역회의(부의장 김영구)는 6월 10일 전주 YWCA 전북하나센터에 14개시군 여성위원장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모금액을 전달했다.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12일 상하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후원금(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 강원 횡성군협의회



▲ 전남 해남군협의회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용)는 15일 관내 북한이탈주민이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비를 모금해 전달했다.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강동일)는 19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토종작물심기 체험행사'를 개최했으며 올 가을에 함께 공동수확해 수확량 중 절반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쓸 계획이다.

통일문화 확산



▲ 대구 동구협의회



▲ 경북 구미시협의회



대구 동구협의회(회장 송진오)는 6월 3일 여성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단체협의회원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2015 민주평통 춤마렐라 통일 퀴즈 대회'를 개최했다.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배인철)는 7일 '제11회 통일 염원길거리농구대회'를 열었다.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이명식)는 11일 '2015 청주시 여성 통일공감 한마당'을 개최했으며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오찬용)는 22~23일 세종고등학교와 여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 평화통일염원 찾아가는 북한사진전'을 열었다.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김길화, 지회장 김을순)는 6월 4~5일 대학생, 학부모, 북한이탈주민등과 함께 '2040 대학생, 학부모 통일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다.



▲ 충북 청주시협의회



경기 여주시협의회 ▶

경남 창원시협의회 ▶



▲ 서울 성북구협의회



▲ 대구 달서구협의회

서울 성북구협의회(회장 이상호)는 4일 '광복, 전쟁, 분단 그리고 오늘'이라는 주제로 '광복 70주년 기념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를 개최했으며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손철수)는 9일 광복70주년 기념 '2015 달서구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를 열었다.

## 해외 지역 통일활동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이석재)는 6월 13일 산둥(山東)성 지역 6개 한국학교와 2개 현지 학교의 국제부에 다니는 한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5 칭다오 통일골든벨' 행사와 통일바자회를 개최했다. 칭다오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칭도이화한국학교 고등부 정윤지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정윤지 학생은 7월 19일 열리는 KBS 역사·통일골든벨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영국협의회(회장 신우승)도 13일 '2015 통일골든벨 영국 결선'대회를 치렀다. 초등부와 중등부 및 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고등부 최우수상은 아메리칸 커뮤니티 스쿨 기밤에 재학 중인 주하정 학생이 차지했다.

# 무작정 떠나고 싶거나 혹은 한없이 게을러지고 싶을 때

인천 강화도



다시 여름이다. 매년 돌고 도는 계절이 새삼 특별할 것은 없지만, 마음속 그늘까지 오지랖 넓게 파고드는 햇살의 끈질김에는 두 손을 들게 된다. 덕분에 무작정 떠나고 싶기도 하고 반대로 맥없이 한자리에 앉아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고도 싶어지는 계절. 일부러 발길을 돌려, 인천 강화도로 향했다. 유연하게 꺾인 해안도로를 따라 정처 없이 떠돌고, 마음이 내킬 때면 과자 한 봉지를 사이에 두고 갈매기 떼와 오래도록 실랑이도 벌였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까닭은 언덕에 서서 내가 온종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라는 어느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바다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주 가끔 궁금해하면서...

## 섬 속의 섬, 그 섬 석모도

내륙의 오랜 침강으로 섬이 되었던 강화도에 물으로 통하는 다리가 생긴 지가 벌써 햇수로 45년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섬으로서는 다섯 번째로 큰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강화도에서 섬 특유의 정취를 기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다행히, 11개의 유인도와 다수의 무인도를 품고 있기에 '섬' 속의 진짜 '섬'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에서 서쪽으로 10여 분쯤 바닷길을 달리면 마주할 수 있는 석모도 역시 강화도가 품은 '섬' 중의 '섬'. 섬이라고는 하지만, 남쪽으로는 산지가 솟아있고 반대쪽으로 기름진 농토와 너른 염전까지 있어 예로부터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으로 손꼽혔던 곳이기도 하다. 느긋한 풍광 속 조용히 저무는 낙조가 매력적인 곳이라 외지인의 방문이 부쩍 늘어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아직 때 묻지 않은 해변과 자연이 있어 안심이 된다.

## 게으른 여행자의 눈치 없는 여행기, 민머루 해수욕장과 보문사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바닷물을 쫓아 조금씩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한 아담한 해변부터 걸어본다. 민머루 해변은 석모도 남쪽 끝자락에 살짝 걸쳐있는 섬 내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1km에 이르는 해변 양 끝으로는 제법 속이 깊어 보이는 송림이 우거져 있으며, 출렁이는 파도소리마저 암전하게 들릴 만큼 백사장은 고운 모래를 자랑한다. 아직은 요란한 음악이나 휘황찬란한 간판의 불빛보다 노곤한 햇살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는 갈매기 떼가 더 주인 행세를 하는 곳. 그래서 자릿값 대신 과자 몇 개만 던져주면 하루 종일 머문다 한들 눈치 주는 이 하나 없다.





조신한 파도소리가 조금 지루해질 때쯤 덜 떨어진 모래 몇 알을 기념품 마냥 옷자락에 매단 채 그리 멀지 않은 보문사로 향한다. 제법 경사가 있는 언덕을 올라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숨이 턱에 찰 때쯤에야 비로소 보문사 경내에 들어서게 된다. 양양의 낙산사, 남해의 보리암과 더불어 국내 3대 관음성지로 손꼽힌다는 사찰은 언젠고 불교신자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숨을 헐떡이는 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700년이 훌쩍 넘게 터를 지켜왔다는 향나무와 그 곁을 내내 맴돌았을 바닷바람이다. 그새 촉촉하게 젖어든 뒷머리까지 다독여주는 바람의 마중에 발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자면 수백 개에 달하는 나한상들이 계단마다 나란히 자리 잡고 앉아 있는 모습에 시야에 들어온다. 신기한 것은 오백 나한상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같은 표정의 것이 없다는 것. 사실 보문사는 선덕여왕 4년, 한 어부가 바다에서 건진 스물두 개의 불상을 모셨다는 유래에서 시작된 사찰로 당시 건져 낸 불상을 모신 곳이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석실사원 '나한전'이다. 이외에도 와불상과 경내 마당에서 다시 400여 개의 계단을 더 오르면 볼 수 있는 눈썹바위 밑 마애석불좌상 등 경내만 돌아봐도 시간이 훌쩍 지날 만큼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한 덕에 한눈에 서해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풍광이 장관이며, 이른 새벽 예불 소리와 함께 은은하게 퍼지는 파도소리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큼 특별하다.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석모도 한 바퀴를 여유롭게 돌아보고 다시 선착장에 일렬 줄을 선 채 배에 오른다. 누가 말했듯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라면 섬 여행은 가장 완벽한 여행일 지도 모른다.

## 할아버지 감을 사이에 둔 '우리' 이야기, 강화평화전망대

강화도라는 단어를 처음 떠올리면, 학창시절 머릿속에 착실히 구겨 넣었던 온갖 역사 상식이 팝콘처럼 튀어 오른다. 거슬러 오르자면 고인들과 단군신화, 강화도조약, 군사요충지로의 중요성에 특산물까지. 기억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강화도가 지닌 역사의 마디가 굵고 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남북 분단의 아픈 현실도 담겨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바로 북한 땅의 예성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 우리는 그 품이 넉넉한 물줄기를 할아버지 강, 즉 조강이라고 부른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지역에 세워진 강화평화전망대에 오르면 조강을 사이에 두고 불과 2km 남짓 거리의 북한 땅을 볼 수 있다. 얼핏 보아도 시야에 들어오는 북한 농촌의 풍경과 때때로 천진하게 뛰노는 아이들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곳. 물론 남북한 경계지역이기에 위장과 선전용 시설도 다소 있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남이나 북이

나 크게 다를 바 없어 더 서글프다. 또, 북한의 금강산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우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노래비도 이곳에 있다. 평소 무심히 흘러들던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이라는 노랫말에 콧잔등까지 시큰해지는 이유는 남과 북이 너와 내가 아닌 '우리'란 사실 때문일 것이다.



## 이 계절의 망중한(忙中閑), 동막해변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강화도에서 역사의 흔적만큼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갯벌이다. 강화도 본섬의 유일한 백사장인 동막해변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 썰물 때면 드러나는 4km에 이르는 드넓은 갯벌이 활처럼 길게 허리를 흰 백사장과 어우러진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덕분에 옷자락이 젖을 걱정 없이 고운 백사장 위에 주저앉아 원 없이 망중한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역시 이곳의 자랑거리. 더욱이 살아 숨 쉬는 갯벌에는 칠게와 고동 등 갯벌 생물들을 직접 볼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동막해변 풍광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지척에 위치한 분오리돈대에 성곽으로 오르면 된다. 돈대란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주로 점경지역 또는 해안지역에 마련한 초소로 분오리돈대의 경우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축조돼, 주변 풍광을 조망하기에 좋다.



## 이 섬의 맛, 새우젓국갈비

군사적 요충지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전투와 위협을 당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라면 단연 강화의 기름진 토지와 풍족한 먹거리 덕분이었을 것이다. 쌀과 인삼, 새우젓과 순무 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하는 강화의 특산물. 그래서 여타 지역에서는 쉽게 맛 볼 수 없는 지역음식도 여럿 된다. 그중 잘 손질한 돼지갈비에 호박, 감자, 파, 두부, 고추를 더해 맑게 끓여낸 후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 새우젓국갈비는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여행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다. 화학조미료 대신 새우젓으로만 간을 해 담백하고 삼삼한 국물에 강화 쌀로 지은 밥을 말아, 순무김치를 곁들이면 밥 한 공기 게 눈 감추듯 사라진다.



<글. 권혜리 / 사진. 김규성>



# 통일한국 전통 장소로 글로벌 냉장고를 부탁해요~.

이택중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 최고의 가수이자 건강한 섹시미의 상징인 팝스타 비욘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몸매관리가 필수지만, 그렇다고 음식을 안먹으면 체력이 떨어져 노래 부를 때 힘들거든요.



오늘도 맛있는 건강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기대돼요.

네! 비욘세 씨가 원하시는 요리는 바로 '건강한 요리'입니다.



제한시간 15분!  
이제 요리를 시작해 주세요!!





아!! 이 냄새~. 기가 막히네요.  
김송주 씨 어떠십니까? 백두산  
왕복할 자신이 생기십니까?



백두부터 한라까지 마라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맛있습니니다.

비욘세 씨 냉장고에 한국된장과 고추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된장과 소스로 다양한 야채와 렌틸콩을 넣어 샐러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한국 소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통일한국에 공연 갔을 때 거기서 맛본 된장이  
너무 맛있어서 아예 통으로 사다 놓고 먹어요.  
요즘 한국 소스가 없는 집이 있나요?



아, 진짜 원더풀! 퍼펙트!!  
한국 소스다 보니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레시피는 진짜  
제 파티 때 꼭  
만들어봐야겠어요!!



우리 전통 장이 원래도 맛있었지만, 통일 후 남북한의 서로 다른 조리법을 활용하면서 종류도 다양해지고 여행객들의 입소문까지 타면서 이젠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소스가 됐죠.

글로벌



요즘은 한국 소스가 대세죠!  
그런데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나 한 접시 더 쥐잉~.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철 별미

## 함경도 감자밥

요즘 제철을 맞은 햇감자는 연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 무렵에 수확되기 때문에 '하지 감자'로도 불린다. 감자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도 감자를 즐겨먹는데, 특히 감자밥은 함경도 지방에서 쌀, 보리쌀, 감자 등을 밥에 넣어 구수하게 먹는 여름철 별미로 열무김치를 곁들이면 더욱 맛있다. 감자는 소금기가 있어야 하므로 밥물을 부을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요리의 핵심이다.

### 요리재료



요리재료 : 쌀 1컵, 보리쌀 반 컵, 감자 2개, 다시마 3조각  
 양념장 양념 : 간장 2큰술, 고춧가루 반 큰술, 설탕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다진 마늘 1/3큰술, 다진 파 1/3큰술,  
 다진 풋고추 반 큰술, 통깨 약간



### 요리방법



1 불에 쌀과 보리쌀을 한데 넣어 씻은 후 30분간 물에 불린다.

2 다시마는 30분간 물에 불려 우려낸다.



3 감자는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뒤 반으로 잘라 4등분하여 잘라 놓는다.



4 냄비에 불린 쌀을 넣고 감자를 올린 후 다시마 불린 물 1컵을 넣어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뜸을 들인다.



5 양념장은 양념을 불에 넣고 만들어 준비 한다.



6 완성된 감자밥에 양념장을 곁들여 보기 좋게 담아 상에 낸다.



요리연구가\_ 나 유 신

## 함경도, 소박하고 구수한 맛 근원

백두산과 개마고원 등 대부분 험한 산악 지대로 이뤄진 함경도. 동쪽에는 해안선이 길어 논농사보다 밭농사를 주로 많이 짓는다. 특히 잡곡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주식으로 잡곡밥을 많이 지어 먹는다. 또한 감자, 고구마도 질이 우수해 이들 작물로 녹말을 만든 다음 여러 음식에 사용하는데, 녹말 반죽을 국수틀에 넣어 만드는 냉면이 대표적인 음식이다.

음식은 구수한 맛이 일품이며, 장식을 하거나 기교를 부리지 않아 소박하다. 함경도 북쪽으로 갈수록 음식의 간이 싱겁고 담백하지만 고추와 마늘 등의 양념을 많이 쓰기도 한다.







통일은 가능성이 아니라 예정된 운명입니다.



스콜피오

차차차



내 딸에게 통일된 한반도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로 이룩된다.



자스민

kjh2248



끝나지 않은 아픔, 통일만이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되어 세계를 빛낼 민족입니다.



빈맘

심표, 느낌표! | 북한친구들아, 같이 휴가가자!

# 북한친구들아, 같이 휴가가자!

휴가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북한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은 휴가  
장소가 있으신가요?  
내가 한국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곳 또는  
북한에서 가보고 싶은 곳을  
간단한 이유와 함께 작성해주세요~~



<b>응모기간</b>	2015. 07.15 ~ 2015.08.09
<b>응모방법</b>	하단 비밀댓글에 작성해주세요
<b>당첨자수</b>	5명
<b>시상내역</b>	문화상품권 2만원
<b>당첨자발표</b>	8월 셋째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



### '17기 출범 축하'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kang313@hanmail.net	강가딘
2	**stoption2@hanmail.net	토레스
3	**ij2000@naver.com	유랑
4	**mina95@naver.com	페트라
5	**u1975@naver.com	라일구



### '내 친구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mk28@hanmail.net	이미경
2	**mtree@hanmail.net	오성목
3	**6491@naver.com	조원표
4	**njeong6473@hanmail.net	최윤정
5	**a6491@naver.com	조예찬
6	**esukangel@hanmail.net	임혜숙
7	**ngwan9684@naver.com	사유한
8	**stoption2@hanmail.net	임영진
9	**dudz@naver.com	노영석
10	**haha1215@naver.com	박민지



## '설문조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1	**s0418@naver.com
2	**mky4778@hanmail.net
3	**monism@naver.com
4	**ddk0915@hanmail.net
5	**pe21gn@naver.com
6	**sporter@hanmail.net
7	**tistlyj@hanmail.net
8	**e6956@hanmail.net
9	**kang1975@hanmail.net
10	**heang@naver.com
11	**c9733@naver.com
12	**eengp1@hanmail.net
13	**lfare-me@hanmail.net
14	**--town@hanmail.net
15	**ereyetg@naver.com
16	**hwamail@hanmail.net
17	**riljeon@naver.com
18	**855535@naver.com
19	**anmimi@hanmail.net
20	**bbaaa@gmail.com
21	**kksshot@hanmail.net
22	**rhaps00@hanmail.net
23	**488505@naver.com
24	**okhwa79@hanmail.net
25	**j2100@daum.net



26	**hlove1990@naver.com
27	**dbrl123@naver.com
28	**jkrh@gmail.com
29	**ano67kr@hanmail.net
30	**dghk109@hanmail.net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